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잠시 바빴던 일상을 잊고, 가을 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택으로 돌아오실 때는 편안한 여정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올 한해 뜻 깊게 보내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풍성한 명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은 남은 한 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끝임없이 분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2025년 10월 5일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병문 드림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0월 10일(금): 국세청 공익법인 재지정 완료

■ 연구원 소식

- 징검돌 프로젝트 안내 드립니다.

한 권의 책은 누군가에게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외로운 하루의 벗이 되기도 합니다.

‘징검돌 프로젝트’는 인문학의 숨결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 책을 전달해 책이 필요한 분에게 ‘생각의 징검돌’이 되어주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모아 주시는 한 권 한 권이 따뜻한 위로와 울림으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2025년 송년회까지 진행될 이 사업은 지역 내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부활동을 통해 회원과 지역 사회가 보람과 긍정적 변화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 도서 기증 문의는 연구원 에스엔에스나 유무선 통신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 담당자는 송정현 연구기획실장입니다.

- 2025년 3차 역사문화기행 안내드립니다.

9월 열린 고창 역사문화기행에 이어 3차 역사문화기행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사 업 명: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역사문화기행 “화순에서 천년의 역사를 만나다”
- 사업일시: 2025년 11월 1일(토)~2일(일)
- 대 상: 회원 및 동반자 30인 내외
- 참 가 비: 회원 9만원(50% 할인), 비회원 (18만원)

□ 주요일정

일 정		내 용
11월 1일 (토)	08:30~09:00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집결 및 출발
	09:00~11:00	전주대학교 ---> 정암 조광조 유배지
	11:00~11:30	견학 및 해설
	11:30~13:00	점심식사
	13:00~14:30	화순 고인돌 유적
	14:30~16:30	운주사 운주문화축제장
	16:30~17:30	숙소 이동
	18:00~20:00	저녁 식사
	20:00~	자유 시간
11월 2일 (일)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09:30	화순 공룡발자국화석산지
	10:00~12:00	백아산 마당바위 탐방
	12:00~13:00	점심식사
	13:00~	해산

조선 여인 민자영의 죽음 - 1895. 10. 8

1895년 양력 10월 8일 새벽 새로 부임한 이후 공사관에 들어박혀 불경을 외우며 연막을 퍼던 일본 공사 미우라는 행동을 개시한다. 청일전쟁 이후 벌어진 삼국 간섭 이후 콧대가 꺾인 일본을 러시아와 미국의 힘을 빌려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조선 조정에 무력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거사'는 일본인들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친일적이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 받은 조선군 훈련대 병사들도 가담했고 대원군도 머느리가 죽어가던 그 시간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입궐을 준비하고 있었다. 훈련대장 홍계훈이 일본 낭인들과 조선군 훈련대원들을 막아서다가 죽음을 당한 후, 지엄한 구중궁궐은 난폭한 폭도들의 놀이터가 됐다. 왕의 침전에 칼을 든 폭도들이 몰려들었고, 왕세자는 상투를 잡히고 칼등으로 얻어맞아 혼이 나가 버린다.

폭도들은 왕비의 거처에 난입하고 왕비는 아수라장 와중에 죽음을 당한다. 왕비의 죽음을 확인한 것은 조선군 훈련대 제2대 대장 우범선이었다.(불세출의 조선인 육종학자 우장춘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신은 기름이 끼얹어져졌고 한 줌의 흙과 뺏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한 나라의 왕비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이었으나 왕비 개인으로서는 그 죽음으로 그녀가 쌓아왔던 악명을 일거에 허무는 죽음이기도 했다. 나라의 명을 재촉하고 가빠져만 가는 숨통을 틀어막았던 민씨 척족의 우두머리였던 그녀의 목숨은 임오군란 당시 왕비를 때려 죽여라는 민중들의 함성 속에 끝났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자신들의 나라 백성들을 때려잡아 달라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끝내는 자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끼리의 전쟁터로 제공하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일본 폭도들을 도운 조선군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의 말은 의외로 건결하다. **“나는 무부(武夫)요. 특별한 정견은 없으나 그 당우(黨羽 - 왕비 세력)를 일소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든 조선을 바꿀 수 없소.”** --<한말 인물의 회상> 권동진 저 중에서

우범선의 생각은 당시 왕비라면 이를 갈던 대다수 조선 백성들의 생각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아니기도 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일테니...